

## 문화 자원의 분배에서 형성으로

강명구(서울대 신문학과)

발제 원고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 논평보다는 문화 자원의 분배라는 문제 영역에 대한 몇 가지 논점들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 논점 1 : 문화는 생활 세계의 삶과 분리

사례 1 : 직업, 방직공장 노동자. 나이, 18세. 학력, 중졸 그리고 공장에서 운영하는 야간 고등학교 재학중. 얼마전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의 한 방직공장에 취직한 지 4년째 되는 여공을 만난 일이 있다.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녀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월급의 상당량을 저축하고 또 월금의 상당량을 피아노 배우는데 쓰고 있었다. “그냥 배우고 싶어서.” “뭔가 좋아 보여서.” “내가 못배운 게 한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배워서 모짜르트를 치고 싶어했다.

모짜르트가 들리는 여공의 자취방이라니 당혹스러웠다. 그것이 현실로 살아있더니 놀라울 뿐이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저질 문화에 물들지 않고 고급 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익히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나이어린 근로 청소년이 구로동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문화부가 오랫동안 외쳐온 문화 정책의 핵심적 기조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구로공단 안에 있는 극장에는 몇 번 가봤는데 지저분하고 볼 만한 영화도 없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직배 영화 상영하는 개봉관은 웬지 어색하단다. 연극이나 음악회는 가본 일이 없고, 예술의 전당이나 과천 미술관은 어디 있는지 들어본 일이

없다. 친구들이 부르는 “소양강 쳐녀”와 주현미의 노래들은 웬지 싫다고 한다.

이 여성노동자가 보여주는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문화부가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 비추어 보면 올해의 문화상을 받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 노동자의 노동 조건, 일상생활,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로 구성되는 생활 세계와 모짜르트의 경쾌하고 부드러운 선율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혹은 문화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개봉관과 연극이나 음악회에 가보지 못한 까닭이 문화 정책의 부재 때문은 아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과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을 들어본 일조차 없는 것이 문화 정책의 부재 때문은 아니다. 여성 노동자가 자라난 가정이 그러한 기회를 준 일이 없고,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도 문화의 부재는 극복될 수 없었다. 만일 그녀가 희망대로 모짜르트를 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 가볼 수 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문화가 생활 세계의 경험과 그것으로부터 구성되는 의미의 체계이면서 또 생활 세계의 실천과 의미의 구성 과정이라면, 모짜르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의 확대는 중요하지는 않으며 여성 노동자의 생활 세계 안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란 주어진 문화의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에 부여하는 의미, 공장에서 동료들과 맺고 있는 연대감, 자신과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것들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윌리암스(Williams)가 말하듯 문화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생활 세계와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자발성의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 논점 2 : 예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라틴어의 artem은 기술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영어에 도입된 것은 13세기경이고, 17세기까지 영어에서 art는 특정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수학·의술·기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7개의 arts’는 문법·논리·수사·기하·대수·음악·천문을 지칭하는 분야였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의 대학에 와서 소위 문리(文理 : liberal arts)라는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artist라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6세기까지 artist는 artisan과 함께 “7명의 뮤즈에 의해 주도되는 분야에서 숙련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다. 7개의 분야란 역사·시·희극·비극·음악·무용·천문을 가리킨다.

17세기에 들어 art는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기예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페인팅·드로잉·인그레이빙·조각 등을 총칭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19세기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인그레이빙을 art 분야에서 제외함으로써 artist와 artisan이 분리되는 계기를 이룬다. artist는 지성과 상상력 및 창조성을 갖춘 사람으로, artisan은 기예를 갖춘 육체 노동자로 그 의미가 정착하게 된다.(Williams, *Key Words*.)

한편 19세기 중반까지 급격히 이루어진 과학과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인해 과학과 과학자의 개념이 성립되면서, art는 학문 분야를 가리키는 문리학(文理學 : liberal arts)과 순수 예술(fine arts)로 분화하게 된다. 이렇게 artist와 artisan의 구분, 그리고 liberal arts와 fine arts의 구분은 곧바로 예술가·과학자·기술자·장인(혹은 숙련공) 등의 영역에 따른 집단의 분화를 낳고, 동시에 예술과 산업, 예술과 과학의 분리를 의미하게 된다.

예술과 노동의 분리는 예술이라는 문화의 형태를 신화화시켜,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만들어낸다. 예술 작품은 미술관·박물관·공연장·극장 등 특정한 공간에서 전시되거나 공연되고,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식과 미적 언어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문화 혹은 이분법이 생겨나게 된다. 고급 예술은 비실용적이고 비상업적이며, 예술적 실천 행위의 결과물로서 예술품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분리는 미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윌리암스에 따르면 aesthetic이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

와서이다. 독일의 바움가르텐(Baumgarten, 1714~1762)이 두 권으로 된 *Aesthetica*를 발간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스어에서 *aisthesis*는 감각적 지각이라는 뜻으로 주로 물질적 사물의 지각을 의미했으나, 바움가르텐은 이것을 인간의 사고나 비물질적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각 활동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미(beauty)라는 개념 역시 “현상적 완성(phenomenal perfection)”으로 정의함으로써 예술의 개념에 감각을 통한 사물과 현상의 이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칸트(Kant) 역시 미를 감각적 현상으로 보았으나, 바움가르텐과는 달리 그리스어의 어원에 보다 가깝게 감각적 지각의 조건에 대한 과학으로 미학을 정의했다.

이들의 개념 사용에 근거해서 19세기 중반 이후 *aesthetic*은 예술과 강한 관련을 가지고 ‘아름다움’·‘미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1859년 해밀 턴(Hamilton)이 미학을 “취향의 철학, 순수 예술의 이론, 아름다움의 과학”이라는 의미로 정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일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aesthetic*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술, 시각적 외양, 순수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범주와 밀접히 관련되고 동시에 예술과 미를 구성하는 주관적 감각 활동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 주관적 감각 활동은 사회적·문화적 해석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서 예술은 사회적 사용이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초월한 실천이나 행위로 인식되고, 예술과 사회의 분리라는 근대적인 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미적 감각 활동이 사회적 해석과 분리됨으로써 사물이나 대상을 미학적으로 고려한다는 일과, 실천적이거나 실용적으로 고려한다는 일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술이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감각 활동의 영역으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문화를 구성하는 또 다른 생활 세계와 그 안에서 공동체적 의미 구성의 과정은 단절된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이분법에 기초한 비평의 담론과 예술 이론의 담론들은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감흥과 감수성을 억압하게 된다. 생활 안에서 대중들이 지니는 미학은 생활용품·민속공예의 장인이라든지 손재주좋

은 사람 또는 춤 잘추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감흥과 감수성을 받아들여 새로운 미적 형식과 내용으로 창조할 때에만 예술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됨으로써 문화의 이분법이 생겨나고, 이분법에 근거해서 제도화된 예술과 문화의 교육이라는 문화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대중들에 대한 제도화된 예술과 미학의 교육은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존의 예술은 수천년 간 생활 안에서 발현된 대다수 대중들의 미적 표현과 감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의 이분법에 기초할 때, 기존의 미적 담론들은 대중들의 삶 안에서 분출될 수 있는 미적 실천들을 억압하게 된다.

### 논점 3 : 문화의 정치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the popular는 16세기경부터 법률적·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집합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민 정부(pouular government)라는 뜻에서 보듯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구성하는 집합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것이 19세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는’·‘사람들이 선호하는’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조작과 왜곡이라는 의미와 관련된다. 1755년 존슨(Johnson)이 편찬한 사전에는 the popular가 다섯 가지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 ①평민적이고 추한, ②보통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③사람들에 의해 사랑받고 즐거움을 주는, ④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⑤대다수 대중들(populis)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는 등이 그것이다.

이들 규정에서 보듯 popular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보통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평민 등의 개인들이나 그러한 행위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당시까지 popular는 현대적 용법인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generally accessible)’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는’이라는 뜻에서 보듯 대중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들에

게 어울리는 문화적 형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1982년에 롱맨 (Longman) 출판사에서 발간한 사전 *New Universal Dictionary*는 the popular를 ①일반 공중(general public)에 관한, ②일반 공중의 필요·수단·취향·이해에 적절한, ③일반적으로 통용되는, ④공통적으로 선호되거나 지지되는 등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개념 규정에서 보듯 정치적 함의를 지녔던 인민(people)이라는 개념은 일반 공중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대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지위가 낮은 평민(plebeian)이라는 사회적 위계의 의미도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이라는 뜻에서 나타났던 권력에 의한 대중 조작이라는 함의도 개인적 선택의 의미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mass의 개념도 간략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틴어 *massa*는 커다란 몸체라는 의미로 “무정형의 또는 구별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빽빽한 군집”을 뜻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타락한 대중이라는 의미가 출현했고, 프랑스 혁명과 영국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혁명 운동과 관련된 대중이라는 ‘일하는 대중’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전통에서 무정형의 구별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이라는 경멸적 의미와 스스로 행동하고 연대감을 지닌 집단이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무지하고, 낫고, 불안정한 무리(mob)의 의미는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 사회·대중 암시·대중 취향·대중 민주주의라는 용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1920년대 미국에서 대량 생산(mass production)이라는 용법을 통해 소비자 대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혁명적 의미의 용법은 20세기 중반 이후로도 살아남아 대중 조직(mass organization)·대중 운동(mass movement)·대중 집회(mass meeting) 등의 용어를 통해 살아남아 있다. 후자의 이런 혁명적 전통과 관련된 긍정적 의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쇠퇴하고, 대중 매체·대중 여론(mass opinion)·대중 사회(mass society) 등에서 보듯 정치·산업·문화에서 수동적인 다수의 집단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popular 와 mass의 의미와 용법에서 정치적 영역과의 관련이 쇠퇴하고

계급·분파를 따라 구별되지 않는 무차별적이고 비조직화된 집단의 의미가 부상하는 역사적 과정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실천과 행위 주체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흥미롭다. 이것은 대중 문화를 보는 이념적 입장에 따라 첫째로 취향 문화의 존재와 의의를 인정하려는 우파적 대중문화론이 ‘일반 공중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이라는 중립적 용법을 채택하는 것과, 둘째로 수동적이고 저속한 대중과 대중 조직의 자본주의 지배를 비판하는 좌파적 대중문화 비판론이 부상되고 고립된 대중이란 개념을 버리고, 노동 계급, 이차적 계급 집단, 프롤레타리아, 민중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

취향문화론의 입장에서는 문화가 상업적 생산의 메카니즘으로 편입되는 상황, 즉 문화 산업에 의한 문화의 생산을 문화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 본다. 취향문화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문화 산업에 의해 생산된 문화 상품이 (1) 경제적 구매력에 따라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으며, (2) 놀이와 오락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3) 사회적 갈등을 화해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민중문화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근거한 민중 미학의 가능성 을 민중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문화의 정치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세계와 문화의 분리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철의 노동자’를 부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